

2016 년 3 월 13 일(주일) 야고보서(16)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약 4:6-10)
“애통하며 울지어다”

<도입>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입니다. 이것은 익히 **정답**으로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답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소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두 종류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이루신 일을 믿고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면 기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지 애매하게만 느껴진다면 성도의 삶에 약점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그리하면’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어가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리하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 삶에 활력이 부여되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보따리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보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채워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 큰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겸손한 자에게(6 절)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일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이 모든 컨트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컨트롤 이슈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노력과 시간을 다해 가르치고, 섬기는데도 그 결과가 자기 수준의 미달로 인해서 화가 난다면, 자신이 컨트롤 이슈에 빠져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 좋은 결과를 도모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도 교묘히 고개를 감출 수 있습니다. 한 예: 종교적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창조의 질서와 화목을 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들자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고 상대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의 열매에 대해 누구와 깊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누어야 할 것을 뱀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쭙지 않았습니까. 왜 입니까?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영적 게으름이란 진리를 깨우치는데 써야 할 에너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브가 뱀과 대화하는데 민첩해 보였지만 사실 게으름을 선택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선택과 결단은 왜인지 피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쪽의 편의와 바라는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바라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하나님께 나아와 묻고 그분과 사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삶의 진정한 힘과 위로와 지혜**를 얻음으로써 온전한 삶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낮추는 자에게(10 절)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묻고 듣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은 낮아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낮아진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와 같이 컨트롤의 보좌에 앉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 나를 높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태도를 갖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을 높이 주시면 그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인격체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경험하는 사람은 애통할 줄 알게 됩니다.

[3] 애통하며 우는 자(9 절)

우리의 현재 삶에 더욱 크신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데도 진정으로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야고보 교우들이 차별의 죄를 짓고도 애통(아파)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이 돌보지 않고, 상처 준 약한 사람들과 여전히 단절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더욱이 매우 가까운 사이에도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언제 진정으로 하나될 수 있습니까? 상대의 아픔이 내게도 아픔으로 전달되고 포개어질 때입니다. 요즘 2 세들에게서 어떤 것이 보입니까? 어른들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걸만 보니까 아이들의 깊은 아픔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아예, 우리 아이는 아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안 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아이들이 아픈 시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어릴 적에는 먹고 사는 생존 문제 때문에 아팠다면,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생명을 누리지 못해 아픈 것입니다. 더 큰 아픔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 그와 하나 됩니다. 더욱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 사이, 교우 사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을 찾아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소유한 마음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두 마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할 때 속셈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파할 때 가장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그와 나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겠다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오늘 대하는 그분의 살과 피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와 교회를 향하신 낮아지심입니다. 오늘도 이 낮아지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사랑의 희생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심이 열리는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2. 내 가까이서 있는 사람의 아픔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픔을 발견하고 어떤 마음의 새로움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됨의 깊은 비밀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